

21세기에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2000년도의 새해 맞이는 예년과 사뭇 다르다.

한해가 저물 때 사람들은 가는 해를 아쉬워하며 오는 해를 가슴 설레며 맞이 한다. 그러면서 반성도 하고 다짐도 하며 희망도 가져 본다. 한해를 맞이하는 일에도 그럴진대 새백년, 새천년 맞이기가 예사로울수는 없다.

그래서 지구상의 곳곳에서는 민족성과 문화양식에 걸맞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전개되고 있다. 사상최대의 불꽃축제, 대규모의 공연, 실용정신을 발휘한 내실있는 개혁 프로젝트 또는 상징물의 축조 등이 그것이다. 그런가하면 2000년도 1년 내내 행사를 전개하는 순간에 꺼져 버리는 불꽃축제와는 대조를 이루는 새천년 행사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12만명의 시민의 평화기원 행사인 <광화문 빅쇼>등이 “전쟁에서 평화로,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메시지를 온나라에 훈훈하게 전해주고 있다.

새천년 맞이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여성계의 결단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우리의 딸과 손녀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주기 위한 <한국여성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딸과 손녀에게 희망을 주는 큰 일을 시작한 것이다.

1만원에서 고액을 기부하는 100만명의 참여로 천억의 기금을 만드는 것이다. 역사상 최초의 여성기금이다. 이것은 종합적이며 항구적인 기금으로서 새세기, 새천년을 살아갈 우리 딸들만큼은 아들과 더불어 똑같이 한국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우뚝서게 하는데 쓰여질 재정기반이 될 것이다.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모순, 이것만은 버리고 새세기를 맞이해야 한다. 태아의 성감별을 통한 여아의 살해가 관습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에서 우리 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내기는 맑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대하는 격이다.

한국여성의 사회참여지수가 세계 102개국 중 83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법률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이슬람권 국가들을 제외하면 한국여성의

사회참여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낮다.

어떤 역사학자의 말을 빌리면 “인류가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세번째 밀레니엄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로마 교황청이 2000년을 <대회년>으로 선포하고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서 골칫거리인 빈국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도록 촉구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다. 아니 폭탄선언이라고 해야 옳다.

회년제도는 기독교에서 유래된 것으로 회년의 선포의 의미는 역사적 과정을 중지시키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다. 즉 모든 사람들이 같은 조건 밑에서 재출발을 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낡은 것, 왜곡된 악순환을 정지시키고 누적된 모순에서의 해방이다.

술한 외세의 침략과 식민지의 기나긴 수난사 속에서 그리고 현대사의 정치적 혼란기 속에서 위대한 모성으로 가정과 민족을 지켜내고, 이땅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밑바닥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한 그리고 앞으로 헌신하게 될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이 사회가 갚아 주어야 할 빛이 있다.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상에서가 아닌 획기적인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하는 우리나라 여성을 위한 대회년 선포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여성의 힘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여성의 세기로 전망되는 21세기의 남녀가 조화를 이루며 사는 세계를 만드는데 필요한 한국여성기금의 모금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분명 우리사회에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대망의 새세기, 새천년이 저절로 오는 것인가!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찾아 온다.

이것이 21세기의 여성들에게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